

주부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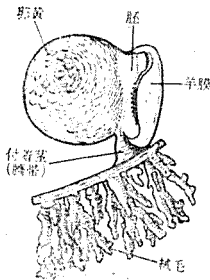
임신이 되기까지

1. 배란(排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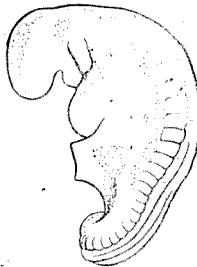
최종 월경을 시작한 날부터 계산하여 대개 14일째, 그때까지 난소에서 성숙한 난자가 난소의 표면막을 뚫고 튀어 나온다. 튀어나온 난자는 난소의 가까이 크게 손을 벌린 모양과 같은 난관체(卵管采)로부터 난관속으로 빨려 드러간다. 한편 성교의 의하여 사정된 정액

중의 포획된 수천만~수억의 정자는 자궁의 울동적 수축이나 정자의 운동에 의하여 자궁구로부터 자궁강내의, 그리고 다시 난관에 들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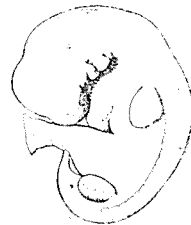
정자는 1분간에 1~4밀리미터 가량의 속도로 움직이며 사정후 수시간이면 난관의 팽대부의 도착한다.



21일째



28일째



34일째

2. 수정(受精)

정자는 난관(卵管)으로부터 빨려드러간 난자와 만나서 난자를 감싸고 있는 과립막세포를 효소의 조력으로 통과하여 난세포에 다달인다.

다음 난세포에 부름이 생겨 정자의 머리부분이 이 난세포중에 떨어져 드러난다. 동시에 난세포막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 이상 정자가 난세포에 침입할 수 없게 한다.

[주] 난세포의 수명(수정능력이 있는 기간)은 배란후 약 24시간으로 되어 있고 한편 자궁내에 들어간 정자의 수정능력 지속기간은 30시간 이상 72시간이 내로 되어 있다.

3. 착상

수정된 난세포는 분할을 되풀이하면서 난관의 유동운동에 의하여 자궁쪽으로 보내어 진다. 수정후 제 6, 7일째, 난세포가 약 2백개의 세포로 분열되었을 때(포배기라고함) 자궁내막에 부착하며 다시 자궁내막하에 이동한다. 계속하여 포배를 포함한 영양배엽이 변화하여 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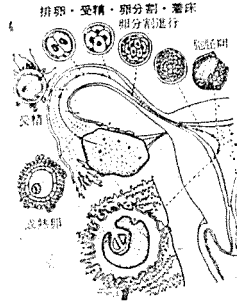


16일째



60일째

배란·수정·난분할·착상



반을 형성하기 시작하지만 이것은 수정후 11, 12일경이다. 신경관이 생기는 것은 16, 17일쯤이며 이때 동시에 심관이 생기며 22일 가량되어서야 작동을 시작한다. 이때쯤 되어서는 입덧 증상, 자궁의 증대, 임신반응 등에 의해서 임신의 진단이 내려질 수 있게 된다. 다 소라도 인간형이 되는 것은 수정후 약 30일경이고 42일경이 되면 손가락, 발가락을 알 수 있게 된다.

4. 여러기관의 발생

여러가지 기관의 원기(原基)가 되기 시작하는 것은 별표와 같고 그 시기엔 여러가지 약물등의 영향을 받기 쉽고 기형아 발생의 계기가 되기 쉽다. 육안으로 남녀의 구별이 되는 외성기가 분화하는 것은 수정후 63일쯤이다. 이때엔 초음파 도플라법에 의하여 태아의 실박동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 임신 3개월말에는 태반이 완성, 태아순환이 안정되어 유산의 위험은 적어진다. <이영숙>